

남녀 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

이 신 숙[†] · 이 경 주*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Health State, and Sex-Role Identity on Self-Esteem of the Elderly Men and Women

Shin-Sook Lee · Kyeong-Ju Lee*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of the elderly men and women in the economic state, health state, and degree of sex role identity. The subjects were 246 elderly men and women living in Chonnam. Statistics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Major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s of self-esteem in the elderly men and women were 19.26 and 18.84 respectively.
- 2)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self-esteem according to health state, economic state, sex role identity in both elderly men and women. And, in the elderly men and Women, the highest influencing variables on their self-esteem were the economic state and health state, and the sex role identity respectively.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315, Maekock-dong, Suncheon, 540-742, Korea
Tel : 061-750-3673, Fax : 061-750-3670
E-mail : Lsi@sunchon.ac.kr

I. 서 론

1. 문제제기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보편화되었다. 이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노인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노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를 약화시키면서 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켰다(김태현, 1994; 윤미혜, 1995). 또한 정년퇴직, 자녀의 독립, 배우자 사별, 친구의 죽음 등과 같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실경험은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를 축소시켜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김시현, 1984; Ebersole & Hess, 1981) 결국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고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주변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도 감소하게 되어(Taft, 1985) 우울(Bensink, 1992), 불안(이미화, 1988), 분노와 적대감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노후의 심리적 적응을 제는 지표로 중요한 개인의 내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송대현과 박한기(1992)에 의하면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인 경우, 질병이 없을 경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양성적인 정체감을 가질수록 생활만족도(김태현, 유은희, 1987)나 자존감(정옥분, 1986)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노인들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이 부분

적으로 다루어져 미진한 점이 있으며, 남, 녀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양상은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만족 정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아존중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여러 요인에 의해 생활환경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주된 변인(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노후의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녀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한 남녀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Coopersmith, 1967)로서, 인간의 행동과 적응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게 되면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 행복감, 의욕, 긍정적인 감정 등을 갖게 된 반면에, 낮으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 등을 갖게 된다(Reitzes, 1996).

노년기가 되면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건강, 감각, 인지, 가족과 친구,

가정, 소득과 직업 등의 상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정신건강 요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Whall, 1987)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며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소외되며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Parent & Whall, 1988). 또한 무기력해지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며(Pensiero & Adams, 1987), 주변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의 감소를 초래하여(Taft, 1985) 노인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Taft(1985)도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를 종합해볼 때,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자원은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고 생활사건에 의해 생긴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필요한 대처양식이 되기 때문이다(Murrell, 1991). 따라서 노후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관건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자존감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자아존중감의 관련 변인

1) 경제 상태

노인 자신의 경제상태를 지각하는 정도를 연구한 결과(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9)를 보면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와 비교하여 매우 좋은 편' 또는 '좋은 편'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0.1%, 약간 나쁘다는 비율이 28.4%, 매우 나쁘다가 21.5%로 절반의 노인이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혹은 고질적인 생활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노인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며 고립과 외로움의 원인이 되어 결국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과 생활만족도는 상관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루어진 대부분의 연

구들이 경제상태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아 존중감과의 관련성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노인의 경제상태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겠다.

Toseland(1977)나 홍순혜(1984)는 노인의 경제상태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Chatfield(1977)도 은퇴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역할의 상실에 기인하기 보다는 은퇴에 따르는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 높은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의 경제 상태가 노후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비추어볼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 심리적 적응의 지표인 자아존중감은 경제상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관한 분석을 행하는 것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 건강 상태

건강 상태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총체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Corder & Showalter, 1972). 노인의 건강 상태는 다른 연령층의 건강문제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노화과정과 더불어 건강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즉 노년기의 건강은 노화과정의 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와 기능저하에 따른 기능장애, 기능상실과 병리적 변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심리 문제로 대별된다.

노화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나타내며, 동시에 인간을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상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 친척의 상실 등에 의한 심리적 변화를 나타낸다. 김미옥(1987)에 의하면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 심리적인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의 상관을 보고하였는데 사회 심리적 소외감은 신체적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노인의 신체적 노화가 또한 사회 심리적인 고독 및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만60세 이상의 노인 2,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미경(1995)연구에서 전체노인의 85.9%가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질병별로는 관절통(56.6%), 만성요통(31.2%), 소화기계 만성질환(19.8%), 고혈압(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노인들이 전체의 72.2%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Hsuen-ling Chen(1994)은 노인의 청각상실과 고독감,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청각상실과 관련된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이 노인들로 하여금 고독감을 일으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Pensiero와 Adams(1987)도 이와 같은 맥락을 제시하였는데 즉 좋지 않은 건강과 만성적 질병은 제한된 활동이나 신체손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요구하여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여 낮은 자아 존중감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술한 바를 통하여 노인의 질병이나 좋지 못한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하므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건강상태 변인을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3)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성으로 구분짓는다. 이는 남성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는 적극성, 활동성, 성취지향성, 독립성, 공격성, 경쟁성, 지배성, 권위지향성, 야망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는 남성성 변인의 점수와 양육성, 순종성, 의존성, 민감성, 동정성, 애교심, 질투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여성성 변인의 점수에 의해 그 유형이 분류된다.

남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남성다운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성 변인의 점수

는 높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성 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여성다운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높고, 남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또한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는 양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이고,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남성적 변인과 여성적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김영희, 1989, Frings-Rafferty, 1980).

한국노인의 성역할 정체감 경향을 조사한 결과(김태현, 유은희, 1987)를 보면 양성형(29.6%)이 가장 많고 미분화형(27.4%), 남성형(27.4%), 여성형(20.4%)임을 밝혔다. 또한 남자노인은 양성형이, 여자노인은 미분화형이 가장 많으며 양성형이 노년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체감을 제시하였다.

Hefner, Rebecca와 Oleshansky(1975)에 의하면 성역할 정체감은 전 생애에 걸쳐서 변화되어 간다고 하였는데 미분화된 성역할에서 양극화된 역할로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남성적, 여성적 역할을 통합시키는 단계로 발달되어간다고 제시하였다. Sheehy(1995)도 '성역할의 다이아몬드형 변화(the sexual diamond)'라는 제목으로 부부간의 성역할의 변화를 묘사했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특성이 10세까지는 유사하다가 사춘기에 상이해지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 가장 현저해진다고 하였다. 그 후 반대 성의 출현으로 남녀 모두 양성성으로 발전하면서 유사해지다가 60대에 이르러서는 남녀가 거의 동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홍숙자(1999)도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해 언급하기를 나이가 들면 성역할 지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노년기가 되면 그간 내재되었던 반대 성의 속성이 표출하게 되면서 그동안 일생 지속되었던 성역할이 남성 혹은 여성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전개된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보겠다. Spence, Helmreich와 Stapp(1975)에 의하면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다음은 남성성 정체감, 여성성 정체감 순이었으며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사람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Puglisi와 Jackson (1981)도 역시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Sinnott(1982)도 노년기에는 양성적인 노인이 정신건강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성이 높은 여자노인이 자기비판의 경향이 많고 생활의 부적응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정옥분(1985)의 결과도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양성적인 사람은 다차원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남성적인 특성 및 여성적인 특성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적응을 더 잘한다고 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지적하듯이 노년기에서는 남녀노인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을 균형있게 발달하는 것이 적응을 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남녀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여 246명의 자료만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1)을 보면, 남자노인이 91명(40%)이었고 여자노인이 155명(60%)으로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비율이 많았다.

노인의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먼저 남자노인의 경우 '그럭저럭 생활이 된다'가 44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족하다'가 29.7%, '충분하다'가 21.9%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에도 남자노인과 같은 경향을 보여 '그럭저럭 생활이 된다'가 54.2%, '부족하다'가 25.2%, '충분하다'가 20.6%의 응답율을 보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좋다'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와 '나쁘다'라는 응답은 각각 25%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나쁘다'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36.1%, '좋다'가 26.5%로 응답한 여자노인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건강상태가 남자노인보다 좋지 않은 이유는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과도한 가사노동의 경험이 신체적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의 경우 남성성을 나타낸 노인이 56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분화된 경우가 23명(25.3%)이었고 양성적이거나 여성성을 나타낸 노인이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미분화된 형태(42.0%)를 나타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성(33.5%), 양성성(12.9%), 남성성(11.6%)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변인	구 분	노인 전체(N=246)			
		남자노인(N=91)		여자노인(N=155)	
		N	(%)	N	(%)
경제상태	부족하다	27	(29.7)	39	(25.2)
	그럭저럭생활이된다	44	(48.4)	84	(54.2)
	충분하다	20	(21.9)	32	(20.6)
건강상태	나쁘다	25	(27.5)	58	(37.4)
	그저 그렇다	25	(27.5)	56	(36.1)
	좋다	41	(45.0)	41	(26.5)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6	(6.6)	20	(12.9)
	남성성	56	(61.5)	18	(11.6)
	여성성	6	(6.6)	52	(33.5)
	미분화	23	(25.3)	65	(42.0)
자아존중감	M (SD)	19.26 (3.39)		18.34 (3.24)	
	t 값	4.49 *			

* P <.05

2. 측정도구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장혜련(1993)의 성역할 지향 척도를 참고하여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는데 크게 남성성(14)과 여성성(13)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집단의 구분(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은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① 양성성 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② 남성성 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여성성 점수 중앙치 미만) ③ 여성성 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미만,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④ 미분화 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미만, 여성성 점수 중앙치 미만)이다. 이 척도는 3점 척도화하였으며 남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90, 여성성 척도는 .74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 노인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이신숙(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3점 척도화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79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남녀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1999년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별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246부였다.

자료 분석은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hree-Way ANOVA, Duncan-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남녀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

노인의 자아존중감(표 1)은 중앙치인 16점보다 높은 평균 18.80점(최대:24점, 최소:8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19.26점이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18.84점으로 나타나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인 이신숙(1999), 이신숙과 조옥희(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한국노인의 자존심의 실태를 조사한 송대현과 박한기(1992)의 연구에서도 한국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의미인 자존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노인의 자존감이 여자노인보다 더 높은 이유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부장 사회로 인한 남아 선호사상이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게 하여 그들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따라서 자기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 수명의 차로 인해 여자노인은 대부분이 사별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배우자의 사별은 생계 수단의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이나

고독한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 한국 갤럽조사(1984)에 의하면 여자노인(32.5%)이 남자노인(24.6%)보다 고독감을 더 느끼며 배우자 상실로 경제적, 정신적 지주를 잃음과 동시에 여자노인이 지녔던 지위와 권위가 흔들리게 되어 긴 노후를 보내면서 삶의 만족도가 남자노인보다 낮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2. 남녀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

1) 남자노인

〈표 2〉와 같이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남자노인이, 경제상태가 좋은 남자노인이, 양성적인 남자노인이 그렇지 않은 남자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표 2〉 남자노인의 관련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량	남자노인 (N=91)					
	변량원	평균	Duncan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경제상태	부족하다	18.11	A			
	그럭저럭생활이된다	19.18	B	2	96.46	48.23 216.04***
	충분하다	21.00	C			
건강상태	나쁘다	17.20	A			
	그저그렇다	19.44	B	2	161.56	80.78 361.84***
	좋다	20.42	C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20.50	A			
	남성성	20.04	B	3	136.04	45.35 203.12***
	여성성	18.33	C			
	미분화	17.30	D			

*** P <.001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3〉에서와 같이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경제상태(17%), 건강상태(16%), 성역할 정체감(7%)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0%이었다. 즉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적일수록 높았다.

남자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을 때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김은주, 1995; 이신숙, 1999; 이신숙과 조옥희, 1997; 전시자,

1998)와 일치한다. 김태현(1997)은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건강의 악화와 경제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이렇듯 노부모가 갖는 상황의 악화는 의존-독립의 균형이 자녀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역할전이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노부모는 자신의 신체적, 물질적 원조를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감으로 자신감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부모로서의 권위는 상실하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Osberg(1987)와 Larson(1978)도 노인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는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히면서 좋은 건강과 여유로운 생활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따라서 노후 생활만족도도 더불어 증진된다고 하여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자노인은 사회적 이탈과 더불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익숙하지 못했던 가정내 역할에서도 친숙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한 재적응이 요구되는 시점(김태현, 1994)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자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남성으로서 성역할을 재조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행한 박경숙과 김명자(1991)도 중년기 여성의 행복도는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집단 순으로 높았었다고 하며 양성성으로의 통합이 중년기의 과업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성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가정하였으나 현대의 인간발달 이론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을 '성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결국

〈표 3〉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남자 노인 (N=91)			
변인	B	β	Partial R ²
경제상태	7.5394	1.5984***	0.17
건강상태	6.0920	1.5062***	0.16
성역할정체감	2.7752	0.7756**	0.07
회귀상수		23.7528	
R ²		0.30	
F		6.12***	

*** P<.001

가변수: 양성성(1), 기타(0)

양성적인 사람이 더욱 성숙되고 자아확신감이 높으며 자발적이고 불편없이 양쪽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하였다(김명자, 1998).

2) 여자노인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표 4)은 성역할 정체감, 건강상태, 경제상태에 따라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자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여자노인의 관련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여자 노인 (N=155)							
변량	변량원	평균	Duncan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경제상태	부족하다	17.36	A	2	52.98	26.49	9.56***
	그럭저럭생활이된다	18.52	B				
	충분하다	18.97	B				
건강상태	나쁘다	17.45	A	2	143.05	71.52	25.80***
	그저그렇다	18.11	B				
	좋다	19.85	C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20.10	A	3	336.78	112.26	40.50***
	남성성	21.00	B				
	여성성	18.56	C				
	미분화	16.85	D				

*** P<.001

여자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연구들(김명자, 1998; 김태현, 1997; 박경숙과 김명자, 1991; Levinson, 1985; Sheehy, 1995)이 양성적일 때 심리적인 건강과 더불어 생활만족도도 높다고 한 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반대 성의 출현과 더불어 남성성이 우세해지는 여자노인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와 같이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성역할 정체감으로서 17%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건강상태(1%), 경제상태(1%)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5% 이었다. 즉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남성성 정체감을 가질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이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이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성역할 정체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노인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이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김태현과 유은희(1987)와 Sinnott(1982)의 연구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여 자 노 인 (N=155)			
변 인	B	β	Partial R ²
경제상태	3.3948	1.6223*	0.01
건강상태	1.9306	1.3800*	0.01
성역할정체감	0.0732	0.8419***	0.17
회귀상수		22.3518	
R ²		0.25	
F		7.49***	

* P<.05, *** P<.001
 가변수: 남성성(1), 기타(0)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중앙치인 16점보다 높은 평균 18.80점(최대:24점, 최소:8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19.26점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18.84점으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둘째,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경제상태(17%), 건강상태(16%), 성역할 정체감(7%)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0%이었다.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성역할 정체감, 건강상태,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17%), 경제상태(1%), 건강상태(1%)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5%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건강상태는 노후의 생활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방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어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포함한 노인과 노인 가족의 생활습관이 성인기부터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노인대학, 노인정,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유지에 관련된 자조적인 기술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볼 때 노인의 경제 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보다는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으로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자녀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인식하고 성인기부터 노후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인의 재취업이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저임금이며 직업상태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에서의 노인 경제 상태의 호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자노인은 양성적, 여자노인은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녔을 때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남자노인에게는 양성적 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노인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에 양성적인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가시켜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이 비슷하게 요구되는 노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성역할 정체감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남자노인의 역할을 다룰 때 양성적인 정체감을 지닐 수 있는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남자노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반면, 여자노인은 남성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노년기에 나타나는 반대성의 출현을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사회적 활동, 종교생활, 타인과의 긴밀한 교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발한 노년기의 생활을 함으로써 남성성 고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8). **중년기의 발달**. 교문사.
- 김미옥(1987).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7(1), 64-78.
- 김영희(1989).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대 박사논문.
- 김은주(1995).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유은희(1987). 노년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13-121.
- 김시현(1984).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관계 분석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박경숙, 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65-80.
- 서미경(1995).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0, 68-86.
- 송대현, 박한기(1992).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79-86.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9).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윤미혜(1995). 노인의 고독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이미화(1988). 입원 중인 척수 손상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 조옥희(1997). 성, 연령,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61-172.
- 이신숙(1999).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45-56.
- 이인수(1998).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하우.
- 장혜련(1992). 남자노인의 성역할 지향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시자(1988).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일 병원 입원노인환자와 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로-. **적십자 간호 전문대 논문집**, 10, 125-144.
- 정옥분(1986). 한, 미 양국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2).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 의식구조 비교 조사.
- 홍숙자(1999). **노년학 개론**. 하우출판사.
- 홍순혜(1984). 활동 이론에 따른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Bensink, G.W.(1992). Institutionalized elderly relaxation, locus of control self-estee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8(4), 30-35.
- Chatfield, W.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of Gerontology*, 44, 169-171.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rder, B. V. & Showalter, R.K.(1972). *Health science and college life*. New York: Brown company.
- Ebersole, P. & Hess, P.(1981). *Toward healthy aging*. C.V. Mosby Co., St. Louis, Missouri.
- Frings-Raferly, S.M.(1980). Learned helplessness as it relates to socialized sex role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Hefner, R., Rebecca, M. & Oleshansky, B.(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43-158.
- Hsuen-ling Chen(1994). Hearing in the elderly relation of hearing loss, loneliness, and self-estee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0(6), 22-27.
-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persons. *J. of Gerontology*, 33, 109-125.
- Levinson, D.J.(1985). *The season of a man's life*. N.Y.: Alfred Knopf, Inc..
- Murrell, S.A.(1991). Protective function of health and

- 10 한국가정과학회지 4(1) : 1~10, 2001
Korean J. of Human Ecology 4(1) : 1~10, 2001

- self-esteem against depression in older adults facing illness or bereavement, *Psychology and Aging*, 6(3), 352-360.
- Parent, C.J. & Whall, A.L.(1988). Are physical activ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related?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0(9), 8-10.
- Pensiero, M. & Adams, M.(1987). Dress and self-estee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3(10), 11-17.
- Puglisi, J.T. & Jackson, D.W.(1981). Sex role identity and self-esteem in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129-139.
- Reitzes, D.C.(1996). Preretirement influences on postretirement self-esteem, *Journal of Gerontology*, 51B(5), S242-S249.
- Sheehy, G.(1995). *New Passages*. N.Y.: Ballantine Books.
- Sinnott, J.D.(1982). Correlates of sex roles of older adults. *J. of Gerontology*, 37(5).
- Spence, J.T., Helmreich, R., &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Personal Psychology*, 32, 29-39.
- Taft, L.B.(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Toseland, R.J.(1977). Senior citizens center participation and other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The Gerontologist*, 17(3), 46-52.
- Whall, A.L.(1987). Self-esteem and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3(4), 41-42.